

美 민주당도 트럼프 대북정책 지지

초당적 결의안 하원 발의 북미회담 개최 환영 뜻 밝혀 비핵화에 수단 총동원 촉구

미국 하원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기울이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틀시 가버드 의원(하와이)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플로리다)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인 지난 27일 ‘한반도에 대한 대통령의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낸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결의안은 먼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미국인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보장하는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역대 지도자들에게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으로 개입하고 군사력 사용에 앞서 모든 비군사적 정책 도구를 소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생물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과 이

들 무기의 운반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할 때까지 경제적·외교적 대북 압박 작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결의안은 과거 네 차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막는 데 부족했다는 점과 과거 한국전쟁에서의 막대한 인명 피해, 최근 군 수뇌부가 지정한 대북 군사 옵션 사용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중국, 러시아의 개입 등 확산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

북 핵실험장 폐쇄 검증 동참 구테흐스 유엔 총장 성명



안토니우 구테흐스(사진) 유엔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실험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유엔도 최대한 검증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테흐스 총장은 성명을 통해 “유엔은 남·북한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최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면서 “어떤 종류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아르메니아 총리 임명 동의안 부결...불안 계속 아르메니아 반정부 시위 주도자 니콜 파슈냐н 시민계약당 의원의 총리 임명 동의안이 의회의 인준투표에서 부결된 이튿날인 2일(현지시간) 수도 예레반에서 지지자들이 이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배심 소환되나 특검, 러시아 스캔들 강수

지난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무러 특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 일원이었던 존 다우드 변호사는 지난 3월 초 무러 특검팀과 회동에서 무러 특검이 대배심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무러 특검팀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추진했으나 대통령이 연방수사관들의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변호인단이 이를 가로막자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우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무러 특검에게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당신은 지금 미 대통령의 일을 망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러시아 20년 만에 군비 20% 줄였다

서방 경제제재 때문인 듯

군사대국으로 평가되는 러시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비 지출 규모를 줄였다. 수년간 계속된 서방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곳곳에 국방비를 늘려가던 러시아였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군사비 지출 통계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지난해 군비 규모는 663억달

러(약 70조8000억원)로 전년보다 20% 급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군비 지출 규모를 줄인 것은 199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친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는 세계 군비 순위에서도 지난해 4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밀려났다. 시리아를 둘러싼 대리전, 교착 상태에 빠진 크림 반도, 러시아 이종간첩 암살 시도설 등으로 서방과 갈등을 빚으며 신냉전 기류가 흐르고 있음에도 오히려 군비가 줄어든 것이다. 러시아 군비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2014년부터 시작된 서방의 경제제재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군사력으로 합병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종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폭락, 물가 상승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러시아는 군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와 교육 예산 등을 삭감하며 버텼지만, 지난해부터는 더 짜내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SIPRI는 설명했다. 러시아는 서방제재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최근 경제를 ‘전시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中 왕이 오늘 김정은 만나다

다자회담·시진핑 답방 논의



서 남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도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이 몇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왕이(王毅·사진)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일 방북길에 올라 북한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평양으로 떠났다. 이번 방문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왕이 국무위원은 3일까지 평양에 머무는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왕이 국무위원은 이번 방북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도 자세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말 베이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평양 방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중국 매체들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시 주석의 방북이 유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의 이번 방북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이자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측의 설명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평화체제 등의 문제와 관련한 북중간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왕이 국무위원은 북한을 상대로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 개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에 이어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과 미국 3자 또는 중국이 포함되는 4자 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큰 성과가 나올 경우 시진핑 주석이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동시 답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즈강 하이룽장(黑龍江) 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왕이 국무위원의 방북을 통해 북한은 중국에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어떻게 협상할지를 설명해 중국의 이해를 얹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 소식통은 “외교 관례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 대표를 보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왕이 국무위원이 평양에 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측에서 중국 국무위원급의 방문을 요청할 만큼 중요한 현안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미국·멕시코 국경 버려진 가방서 발견된 아기 호랑이 미국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텍사스 주의 미국-멕시코 국경에 밀입국자들이 버린 가방에서 생후 4개월 된 호랑이 새끼를 발견했다고 미 언론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순찰대는 호랑이 새끼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에 있는 클레이디스포트 동물원으로 보냈다. <미 국경순찰대 트위터 캡처>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35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문의. 010-6838-1230